

男性 넥타이 發展에 對한 歷史的 考察

A Study o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an's Necktie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衣裳學科

助教授 朴 敏 予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Assistant Prof.; Meegnee Park

<目 次>

- | | |
|----------------------|-------------|
| I. 序 論 | III. 發達과 變遷 |
| II. 넥타이의 起源과 Cravate | IV. 結 論 |

<Abstract>

We investigate several theories on how the cravate came into being and eventually evolved into the modern day necktie. Among the different possibilities, the most plausible case is the introduction of the neckwear by croatian soldiers into France near the beginning of the seventeenth century. During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he beautiful costumes and extravagant embroideries using the expensive laces, were common practices among the high society of the royal court, and the cravate evolved into a favorite ornament. While it was emerging as a beautiful part of man's dress in France and the continent, Charles II brought the cravate to England where it became the central part of the dandy's dress.

The cravate became not only a part of dress but a subject for a solemn ceremony. George Brummell was the most famous English dandy associated with this ritual and he is also credited as the father of modern men's dress. In England, Brummell became famous for his clean cravate and dark, subtle colored dress of proper fit and cut, while in France the cravate was used as the expressions of political opinions.

They were san cravate, muscadins and incroyables, for example. The classic style of male dress in the nineteenth century was due to Brummell and the severe undorned silhouette he started has changed very little to become the present day male dress.

I. 序 論

어떤 時代에 널리 보급되는 衣裳의 style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藝術 作品과 같이 그 時期의 精神的 產物이고 社會的 與件의 表現이다.

Fashion은 모방행위이므로 社會를 同質化도 하지만, 쉬지않고 變化하기 때문에 逆說의으로 한 時代로부터 다른 時代를, 그리고 한 社會階級으로부터 다른 階級을 區別하기도 한다¹⁾.

歷史의으로 男性衣裳이 女性衣裳보다 그 時代를 더 直接的으로 表現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時期에는 男性衣裳이 女性衣裳과 區別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古代 Greece와 古代 Rome의 흐르는 것 같은 긴 Flowing robes와 Byzantine 時期의 아름다운 비단 衣裳, 대문호 Goethé 활약시의 긴작업복(smok) 모양의 gown이 男女함께 使用한 例이다. 男性用 doublet이나 hose가 發達함에 따라서 男女衣裳裁斷이 완전히 區別되게 되는데 衣裳에 쓰이는 값비싼 材料는 같은 것을 使用했으며 이 상태는 19世紀 初까지 계속 된다. 宗教·哲學·歷史의 事件들이 모두 男女衣裳 發展에 影響을 준다. 그러나 男女衣裳에만 影響을 준 한가지 要素로서 軍인의 服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影響은 男女衣裳 歷史 전반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軍服의 一部分만이 모방되기도 하고 全體가 市民衣裳의 一部로 채택되기도 한다.

Cravate²⁾의 始初도 軍인들로부터 전해받은 衣裳 一部分의 좋은 例가 된다. 17世紀 初 네델란드식 간편한 市民服과 世紀中葉 영국 Crommell 공화정 시절의 검소한 Puritan 衣裳을 제하고는, 17世紀와 18世紀는 화려하고 사치스런 衣裳이 支配의 이었다. ribbon과 lace로 trim한 衣裳에 화려한 cravate는 必須의인 것이었다. Rococo의 마지막 時代인 Louis 16세(1774~92)때에 오던 衣裳이 화려하고 사치함에도 불구하고 女性的이고 연약한 면이 엿보이는데 그것은 쇠퇴해 가는 時期의 象徴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男性衣裳으로부터 女性的 裝飾要素의 消滅을 재촉한 것은 理性主義의 政治的 背景과 더불어 화려한 비단 무늬(brocaded fabrics)를 버리고 무늬가 없는 服地로 衣裳을 裁斷하는 것인데 이것은 中產階級의 影響力이 가장 강하던 영국에서 당시 盛行하고 있었다.³⁾ 1789年 불란서 革命으로 불란서가 그 동안 누리던 大陸 fashion 본거지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은 1790年 6月 파리주재 Weiman fashion 잡지기가 송부한 통신에서 “fashion의 바퀴가 파리에서는 완전 정차했고 이제는 모두가 영국 스타일을 입는다”라

는 것을 보아 그 당시를 짐작할 수 있다⁴⁾.

당시 새로 發明된 機械類들에 基盤을 둔 產業革命의 큰 影響에 依해서 화려한 불란서식과는 다른 固有의 영국식의 fashion이 유럽대륙에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 中產階級 男性들은 단순하고 허식을 피하며 우아한 衣裳과 單色으로 초록파랑 및 회색 등의 가라앉은 色感의 coat를 즐겨 입었다.⁵⁾ 實用的 衣裳에 唯一하게 남은 화려함은 흰 cambric이나 muslin으로 된 cravate였다. cravate는 항상 빈틈없이 깨끗하고 윤기가있는 순백색의 것을 보통 착용하였다. shirts와 neckcloth linen을 清潔하게 製品化한 것은 fashion상 진기품이 되었다. 이 潔癖性은 現代式 男性衣裳 fashion界의 初祖라고도 하며 Dandy⁶⁾의 왕자라고 號稱할 수 있는 George Bryan Brummell(Buck, Beau Brummell)(1778~1840) 時代에 가장 極致를 이룬다. 前時代 裁斷師가 화려한 裝飾品을 調和있게 衣裳에 裝飾하는 것에 비해, 19世紀 一流裁斷師는 洋服裁斷 技術로 判定되었다. 男性衣裳이 單純化됨과 同時에 均一化되기 始作함에 따라 衣服을 着用하는 사람의 自己表現은 裁斷이 잘 되어 몸에 꼭 맞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또 하나 남은 純粹한 裝飾의 要素가 cravate였으며 Dandy의 關心事였다.

19世紀 初까지는 cravate와 waist coat가 단조롭게 되고 어두운 色感의 衣裳에 活力素役割을 하고 있었으나 19世紀末에 cravate의 後裔인 necktie만이 男性衣裳 중 唯一한 色感있는 部分으로 남게 되었다. 이 또한 現代에 와서는 全體 衣裳과의 調和를 爲하여 점차 차분한 색깔로 變化되었고 눈에 뚜렷하게 띄지 않는 重要한 accessory 役割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넥타이의 起源인 cravate에 對한 發達과 變遷(17世紀에서 現代까지)에 對해서 研究考察하여 現代 男

1. Simmel, George. *Fashion International Quarterly*. Vol. 10, Oct., 1904, p.130~155.
2. cravate, cravates(불어), cravat(영어) cravatte(독일)
3. Varron, A. "Neckties." *Ciba Review* 38, 1941, p. 1364.

4. Schramm, H. "Men's Dress." *Ciba Review*, Vol. 11, No. 124, 1958, p. 9.
5. Schramm, H. *op. cit.*, p. 7.
6. Dandy; 멋쟁이 남자를 가르키며, 이 말로 19세기 초부터 사용됨. 예를 들면 영국과 불란서 남성 fashion에 영향을 미친 George Brummell을 들 수 있다. Calasibetta, Charlotte.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p. 141.

性衣裳에 있어 유일하게 멋과 개성을 나타내는 necktie 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研究를 하였다.

II. Necktie의 起源과 Cravate

現代男性 necktie 의 起源인 cravate 는 neckwear 또는 neckcloth 의 一種이다. cravate 의 發生과 變化는 軍事的 事件과 關係가 깊다. 30年戰爭(1618~1648)에 參加한 不蘭西 軍人들이 Croatia 出身 不蘭西 同盟軍의 목수전에 魅惑되어 이것을 不蘭西에 紹介한 것이 Cravate 의 始初가 되었다. 17世紀 初 ruff, whisk 와 같은 넓은 칼라에 풀을 먹이고 다림질하는 것이 軍人들에게는 불편하였으나 목수전은 목에 여러번 감고 tassels 을 달고 lace 를 붙이면 보기에도 좋고 使用하기에 便利하므로 實用的이었다(그림 1).

cravate 의 單語는 Croatia 地域 이름이 變遷되어 생긴 말로 認定되며 이러한 學說을 支持하는 證據로는 Louis 14世 時期에 Croatia 地方出身으로 構成된 部隊를 'Royal Cravate' 라고 號稱한 것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는 不蘭西로부터 들어온 cravate 를 "Cravatte"라고 쓰는데 이것 以外에도 독일 古語에 "Kroat" 또는 "Krobat"라는 單語가 있다. 그러나 이 單語들은 Flemish 에서 거칠고 髭복한 사람이라는 뜻의 "Krawaat"에서부터 온 말이다⁷⁾.

오래된 목수전의 例로는 Trojan 기둥 부조에서 (그림 2) 로마 兵士들의 "Focale"을 들 수 있다. 로마 固有의 것이 아니고 北方民族으로부터 모방한 "Focale"의 이름을 "목"이라는 Latin 語 "fauces"로부터 온 말이다. focale 은 거칠은 천으로



[그림 1] Croatian origin of the cravate 17th C. Wilcox, R. Turner. The Dictionary of Costume, p. 98.



[그림 2] Roman soldiers building a fortress They are wearing the neckcloth known as "focale". Detail from the column of Trajan, Rome

Varron, A., Ciba Review 38, p. 1368.

만들었고 목수전과 손수전 區別없이 使用하였다. 목도리로 focale 을 두르기도 하고 한 쪽 끝을 앞으로 늘어뜨리거나 러리며 속에 넣어 固定시키기도 하였다. 로-마 兵士들은 戰爭에 參加할 때만 focale 着用이 許容되었으며 北方地域의 寒冷한 氣候를 견디는데 必要하였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focale 着用을 연약한 證據로 認識되었고 虛弱한 Augustus 황제도 私席에서만 着用하였으며 Nero 황제만이 감히 목수전을 公席에서까지 着用하였다⁸⁾.

cravate 의 始初에 關하여 Croatia 兵士들에 의한 導入說과는 對照의으로 넓고 밑으로 내려진 collar 로부터 變化된 새로운 fashion 이라는 主張도 있다. 즉 Louis 14世(1643~1715)時期에 와서 使用하기 始作한 巨大한 假髮이 collar 의 大部分을 가리고 前面 一部分을 보이게 되니 넓은 collar 의 必要性이 減退되게 되었으며 外部에 나타나는 前面의 重要性이 增加됨에 따라 그 部分 칼라를 점점 크게 만들다 보니 前面에 늘어뜨린 모양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發展하여 cravate 가 發生하게 되었다⁹⁾.

以上과 같이 여러 곳에서 語源을 찾아볼 수 있

7. Varron, A. *op. cit.*, p. 1368.

8. Varron, A. *op. cit.*, p. 1369.

9. Lester, Katherine Morris and Oerke, Bess Viola. *Accessories of Dress*. Illinois: Chas. A. Bennets Co., Inc., 1940. p. 213.



[그림 3] Cravat tied in a bow.

Cunnington, C. Willett & Cunnington, Phillis.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p. 146.

으나 中世紀를 包含하여 17世紀初까지는 목에 cravate 를 두른 例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Croatia 軍人들에 依한 導入說이 가장 믿을만한 學說이다.^{10,11)}

Ⅲ. 發達과 變遷

17世紀 初 불란서에서 cravate 가 流行하기 以前에는 “bandstrings”라는 linen “band”에 끈이 달려 턱 아래서 묶도록 된 목 裝飾品이 流行하고 있었다.¹²⁾

Cravate 는 最高級의 muslin 이나 cambric 으로 길게 만들었으며 전체를 lace 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lace 로 끝장식만하거나 수를 놓기도 했다. 이러한 cravate 는 목에 한 두번 감은 후에 턱 아래에서 느슨하게 묶어 놓았고 또 나비모양으로도 묶었다(그림 3).

당시 上流社會에서는 軍人들로부터 유래된 cravate 에 裝飾品을 添加하였는데 색깔있는 silk 로 나비 모양을 만들어 매듭위에 한개 붙였으며 Louis 14世때 와서는 차차 더 큰 나비를 cravate 매듭 양쪽에 여러 개씩 붙이곤 하였다. 또한 Louis 14世때 愛用되기 시작한 lace jabot 는 貴族들이 긴 lace cravate 대신에 使用하기 시작한 것으로 男

子들의 shirts 前面에 lace trimming 으로 精巧하게 주름을 접어서 늘어뜨린 긴 裝飾品을 말하며 19世紀 初까지 가끔 再現하곤 했다. jabot 의 길이는 流行된 時期에 따라 相異하며 한때는 대단히 길어서 손끝을 가릴 정도였다. 이 긴 jabot 는 당시 貴族들에게도 不便하여 길이가 3 inch 정도로 짧아진다.

cravate 를 매는 것은 불란서 왕에게는 重要한 아침 日課로써 여러가지 裝飾과 다른 색깔의 ribbon 으로 된 cravate 를 쟁반에 가득채워 왕에게 바쳐서 그가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cravate 取扱專門 管理人 “Cravatier”를 정식으로 任命하기까지 하였다. “Cravatier”로 任命된 管理人에는 M. Miramond 가 記錄되어 있다.¹³⁾

cravate 가 영국에 들어온 것은 Charles 2世(1660~1685)에 依해서 였는데 그는 오랫동안 불란서 王室에 避身해 있다가 1660年 영국王으로 歸還하면서 당시 불란서에서 流行되던 cravate 를 導入한 것이다. Louis 14世가 그러했듯이 Charles 2世도 精巧하게 製作된 lace cravate 를 대단히 좋아했다. cravate 를 감비싼 불란서 lace 로 만들어 갑옷과 함께 着用하기도 했다(그림 4). Charles 2世가 使用한 cravate 는 材料가 다르나 그 모양은 現代 男性 necktie 와 흡사한 점이 많다. 영국에서는 불란서식으로 ribbon 裝飾을 하지 않고 매듭



[그림 4] King Charles II of England(1660~1685) wearing the cambric cravat which he introduced into England. Varron, A., *Ciba Review* 38, p.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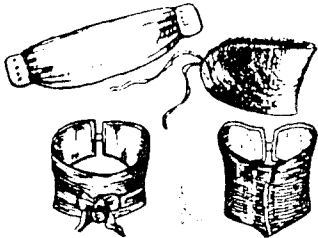
10. Lester, Katherine Morris and Oerke, Bess Viola. p. 214.
 11. Bigelow, Marybelle S., *Fashion in History*. Minnesota: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 1970, p. 78.
 12. Bradley, Carolyn G., *Western World Costume*.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Inc., 1954. p. 132.

13. Binder, Pearl. *The Peacock's Tail*. London: George G. Harrays & Co., 1958. p.174.



[그림 5] Steinkerque cravate.

Wilcox, R. Turner. *The Mode in Costume*, p. 183.



[그림 6] Stochs

- a. Col-cravat b. Colletti Russi
- c. Plain Bow d. Military

Bigelow, Marybelle S., *Fashion in History*, p. 236.

도 하나로 지었다.

17世紀 末葉 cravate는 다시 軍人의 影響으로 變化를 가져왔다. 1692年 8月(Louis 14世 時期에) 불란서와 荷蘭드가 戰爭中에 Steinkerque(Steenkerken)라는 마을에 주둔중이던 불란서 軍에게 새벽을 틈타 敵軍의 불의의 襲擊이 있었다. 불란서 軍은 cravate를 정식으로 땀 時間的 여유조차 없어 목에 둘러 후에 매지 못한 끝을 coat의 단추 구멍에 끼어 넣었다. 이 싸움에서 불란서가 크게 이겼으며 이를 記念하기 위하여 cravate는 Steinkerque식으로 매는 것이 流行하였다고 大文豪 Voltaire는 *Le Siecle de Louis XIV*"(루이 14世의 時代)에서 記述하고 있다¹⁴⁾(그림 5). 女性들도 衣服에 特別히 구멍을 만들어 Steinkerque를 着用하는等 이 流行은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流行하게 되었다. 이것은 muslin cambric, lace

14. Wilcox, R. Turner.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p.183.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材料를 使用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색깔로도 表現했다. Steinkerque뿐만 아니라 cravate도 계속 着用했으며 턱 밑에서 내려온 두 끝의 길이가 틀린 것도 있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Steinkerque를 18世紀 中葉까지 着用하였다 특히 영국 將校들이 愛用했는데 바람이 심한 海上에서 便利하였다. 불란서에서 Steinkerque는 Philip of Orleans(1715~1723섭정시기) 공배와서 점차 流行에서 쇠퇴되며 넓고 거처장스러운 "à la Chancelière"식 cravate가 대신 流行한다. 이것이 점차 없어짐에 따라 검정색 및 다른色相의 silk ribbon을 목에 두르고 나비모양으로 묶는 것이 流行하였다. 넓은 band로 된 neckwear인 stock이 등장하면서 以上과 같은 cravate 流行에 變化가 온다. stock은 linen이나 cambric으로 주름을 잡던지 풀을 땃땃이 먹여만든 band로 목에 두르고 뒤에서 고정시킨다(그림 6). stock의 꿰고리는 금 은이나 다이아몬드로 裝飾하여 wig와 함께 쓰기도 했다. 1730年頃에는 stock 위에 넓고 검은 ribbon을 매는 Solitaire가 流行하였는데 이것은 항상 bag wig나 혹은 Pig tail과 같이 ribbon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돌아와 턱 밑에서 나비 모양으로 매는 것이 보통이었다(그림 7). 18世紀 中葉 以後로는 着用하기가 不便한 높고 땃땃한 stock을 使用하였다. stock은 19世紀 中葉까지 使用되긴 했으나 普遍的인 것은 아니고 乘馬할 때나 軍服에서만 利用되었다. 1770年頃에 Macaroni들에 依해서 cravate가 다시 流行을 하는데 이때 cravate는 끝을 lace로 裝飾한 muslin으로 만



[그림 7] Solitaire

- a. Large-wig and solitaire, worn with beaded cravate
- b. Bag-wig showing large bow behind: solitaire with large bow under the chin.

Cunnington, Willett & Cunnington, Phillis.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Eighteenth Century*, p. 90.

들었고 턱밑에서 나비 모양으로 묶었다.

1789년의 불란서 革命으로 貴族의인 正裝의 必需品이던 잘 꾸며진 lace cravate가 流行에서부터 물러났으며 衣裳도 單純한 形으로 變化를 가져오게 된다. 革命期때의 불란서에서는 목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 流行이었다. cravate를 着用하는 것만으로도 民衆의 敵인 貴族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였다.

“Sans Culott”(꼭끼는 무릎바지를 着用하지 않는 사람)는 “Sans Cravate”(cravate를 着用하지 않는 사람)였다.

革命 指導者들은 衣服 着用 問題가 미해결로 남아있다고 보고 畫家 Louis David(1784~1825)에게 革命世代에 어울리는 衣裳을 만들게 했다. David의 作品은 불란서 과거의 歷史의 衣裳과 現代衣裳의 要素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으나 목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모양으로 스케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design은 男性들에게는 너무 환상적이라고 생각되어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¹⁵⁾. 革命軍의 指導者들은 Louis 15세때 紹介되었던 높고 뾰뾰한 collar를 가진 軍服上衣와 함께 검은색 cravate를 着用했다. 軍服上衣 前面 collar는 넓게 열려 있어서 cravate가 잘 보였다.

畫家 David에게 革命衣裳 design을 의뢰한 것만 보아도 革命世代가 衣裳이 政治的 表現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꼈음을 알 수 있다.

1793~1794년에 걸친 恐怖政治 時期에는 당시의 支配階級인 革命 勢力에 對抗하여 그들과 반대되는 極斷的 行動을 通하여 支配勢力에 對한 경멸을 表現하였다. 이들은 大部分 革命 時期에 돈을 모은 사람과 貴族들의 子弟들로 이들 “Muscadins¹⁶⁾”의 衣裳은 과장되고 극단적이었으며 기피하기까지 하였다. 지나치게 꼭끼는 바지와 tail-coat를 着用하였는데 色相은 주로 회색이었다. 썩이 올라간 삼각모자는 너무 커서 그들의 얼굴이 거의 묻혀버릴 정도였다. 이런 服裝으로 손에 곤봉을 들고 Royal Palace 근처를 배를 지어 물러 다니다 革命 지지자들과 싸움을 걸곤 하였다. 그들의 重要

15. Varron, A., *op. cit.*, p.1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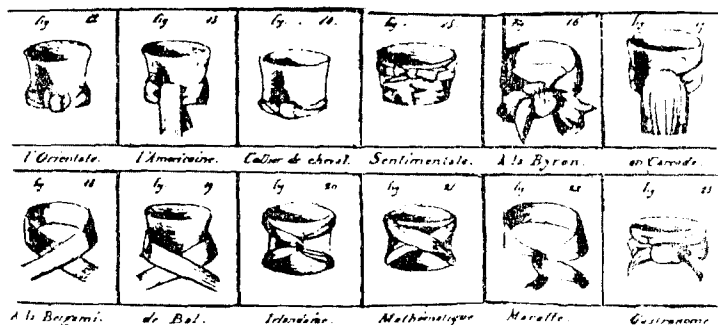
16. Muscadine; 불란서 혁명 후 지나친 옷차림과 musk (숫사향노주) 향료를 사용한 왕정주의자를 가르킴.



[그림 8] Incroyables (Directoire 1795~1799)
Varron, A., Ciba Review 38, p.1375.

한 特徵은 大型 초록색 cravate인데 이는 王政에 대한 지지의 象徴이었다. 그후 Directoire(1795~1799총재정부시대) 時期에는 “Incroyables”라고 불리우는 젊은이들이 파리 市街를 muscadins와 같은 모양으로 물러 다녔다(그림 8).

그들의 態度는 무절제했으며 비정상상으로 보일려고 노력했다. 必要도 없는 거짓 안경을 쓰고 극심한 근시인양 行動하며 입은 외투의 허리모양은 좁아서 마치 未熟한 裁斷師가 만든 인상을 주었다. 어깨는 우수광스럽게 넓지했으며 Breeches(바지)는 느슨히 느러뜨려졌으나 무릎에서 너무 짝 매어 져다리가 등글게 안으로 휘어 보였다. 얼굴은 단정하지 못한 머리칼에 가려서 알아보지 못하였고, 着用한 cravate는 야한 줄무늬로 너무 커서 아래 입술에 와 닿는 것도 있었다. 이 cravate는 露出된 목에 매기도 하고 두툼한 cambric cravate 위에 scarf처럼 들르기도 하였다. “Incroyables”의 大型 cravate는 수많은 풍자의 對象이 되었다. 革命末期에 “Incroyables”들은 돌아온 王政主義者와 한때가 되었으며 그들은 大型 줄무늬 목수건 외에도 흔히 흰색의 muslin을 목에 감았는데 이것은 Louis 16世(1774~1792)가 着用하였던 흰색 cravate fashion의 연속이었다. 때때로 cushion



[그림 9] Sketch showing various types of neckties and their names. "L'Art de mettre sa Cravate." 1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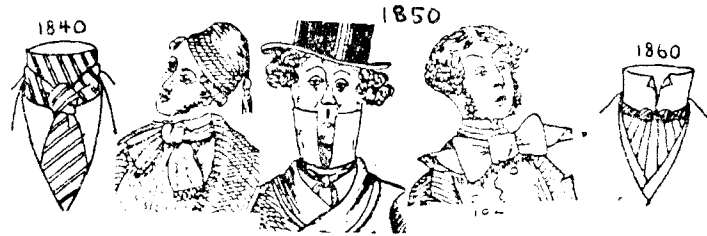
이나 pad를 cravate 밑에 받쳐서 실제보다 더 두툼하게 보이도록 하기도 했다. 파리의 慣習을 記錄研究한 Sebestien Mercien에 依하면 이들은 cravate가 마치 cushion인양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그들의 턱은 두툼한 옷감 사이에 완전히 묻혀 있곤 했다고 한다¹⁷⁾.

Fashion 역사에서 보면 여러가지 다른 경향들과 內部的 葛藤이 많은 時期에는 흔히 衣裳이 奇拔하고 空想的인 모양을 하게 된다. 이것이 곧 18世紀末에서 19世紀初에 있었던 일이다. cravate도 例外는 아니었다. 大型 cravate(Handkerchief나 neckerchitf라고도 불렀음)가 時期에 나타났는데 큰 사각형의 lawn, muslin 혹은 silk를 대각선으로 접어서 목에 두른 다음 턱 밑에서 묶어 주었고 풀을 먹이던지 혹은 목수건으로 밑에 바쳐 귀까지 높이 올라오기로 했다. 더욱 立體感을 내기 위해 두개의 cravate를 같이 使用하는 것이 流行했는데 흰색 cravate를 목에 두번 감아 맨 위에 다시 검은색 cravate를 같은 크기로 함께 매어서 턱이 완전히 파묻혀 버렸다¹⁸⁾. 1809年頃에는 흰색 cravate 대신 높은 흰색 collar로 使用되었으며 그 흰색 collar 위에 검은색 silk cravate를 매었다. collar가 높아짐에 따라 목수건 cravate도 높아져 풀을 팻팻하게 했으며 이 cravate를 "starches" 혹은 "pillory collars"라고도 불렀고 이것은 어떻게 잘 땄 수 있는냐가 重要한 問題로 등장했다.

1818년에 作家 不名의 영국의 著者가 "Neck Clothiana"(목수건 tie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

을 출판하고 거기에 流行을 쫓는 男性들에게 그들의 個性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necktie를 매고 어떤 色相을 選擇할 것인가에 對해 충고를 했다. 논조의 반은 풍자적이고 반은 진정인 듯했으며 이것은 19世紀初 출판물의 特徵이었고 그후 수십년 계속되었다¹⁹⁾. 점차 衣裳 fashion이 規格化되어 個性을 잃어가고 있는 時期에 大衆으로부터 신사를 區別하자면 necktie로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1823年 불란서에서 "Cravatiana"로 번역 출판되었는데 以上과 같은 內容이 더 확장 說明되었다. necktie 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才能이 아니며 멋있고 特徵있게 cravate를 매는 技術은 하루에 배울 수 있는 技術이 아니고 많은 時間과 노력을 必要로 하며 이 책은 日常生活에 쫓겨 바쁜 時間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시간 또는 그 以上の 時間을 衣裳 치장에 소모하는 fashion계의 男性들을 위한 출판물이라고 했다. 이 책의 內容을 몇가지 說明하면 "Oriental"이라는 cravate는 항상 흰색이며 끝을 crescent형으로 올려야 되고 mathematical(수학적) cravate는 삼중으로 규칙적 모양을 하고 있으며 "love throne"(사랑의 왕자) cravate는 美男의 젊은 얼굴에만 맞고 장미색 볼에 맞추어 분홍색이라고 한다. "gastronomical"(미식가)의 cravate는 느슨히 매서 성찬의 많은

17. Binder, Pearl Muffs and Morals. London: George G. Harrays & Co., 1953. p.186.
 18. Lester, Katherine Morris and Oerke, Bess Viola. *op. cit.*, p.217.
 19. Varron, A., *op. cit.*, p.1381.



[그림 10] Long ties, de Joinville, barrel type shoe-string neck-tie, narrowband with a tiny bow. Cunnington, C. Willett & Cunnington, Phillis.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Nineteenth Century, p.172, 209.



[그림 11] a. Teckor Four-in-Hand.
b. Ascot or Puff Scarf
Wilcox, R. Turner. The Dictionary of Costume, p.222.

음식을 먹는데 不便을 주지 않는 목이 되도록 한다. 이런 cravate 는 물을 먹이지 않았고 색깔은 식탁의 삶은 햄의 연한 분홍색이거나 어린 꿩의 목갈이 눈부신 색이어야 된다. 가장 복잡한 모양의 cravate 는 “gordian”인데 젊은 外交官들을 위한 것으로 너무 복잡하여 이 매듭을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책의 讀者들에게 풀지 말고 매번 짜라라고 했다. 大部分의 cravate 는 옷감을 접어서 앞에서부터 뒤로 목에 감고 뒤에서 끝을 十字(cross)로 한 뒤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매듭을 묶는 것이었다. 例外로 極少數의 경우에만 “Cravate à la Byron”(바이론식 cravate 매듭법)이라고 하여(그림 9) cravate 를 뒤로부터 앞으로 해서 앞에서 매듭을 매는 現代式과 같은 方法을 使用했다. cravate 를 맨 후에는 작고 두껍지 않은 다리미로 손질하여 마지막 완성을 하는 것이었으며 잘못되어 엉켜서 매듭지었던 cravate 를 불뚝없이 풀어지더라도 두번다시 使用하

지 않는 것이 불문율의 상식이었다²⁰.

1827年 파리에서 “L'art de mettre sa cravate”(cravate 를 매는 技術)라는 책이 出版되었는데 여기서 18章에 걸쳐 매는 “藝術”에 對한 說明이 되어 있다. 이 책이 cravate 매는 법에 對한 知識을 執約했다는 데서 重要한 資料가 될 수 있다. 19世紀 末까지는 著者が 누구인지 확실치 않았으나 現代에 와서 著者が 偉大한 小說家 Honore de Balzac(1799~1850)이라고 거의 確信하고 있다. 이것은 불란서 作家이며 풍자 畫家인 Henri Monnier(1805~1877)가 그 책의 표지를 Balzac을 위해 그려 주었다는 證言으로 더욱 確實하게 된다²¹ 그러나 1830년에 Balzac은 이 책의 著者임을 숨길려고 “Physologie de la Toilette”(衣服裝飾에 관한 생리학)라는 책에서 이책을 비웃는 글을 실었다. Balzac에 依하면 cravate 의 여러가지 種類에 對한 分類 및 매는 법에 對한 規則과 說明은 웃음거리라고 빙자하였다. 또 이런 法則이 天才를 쓸데없이 規則과 慣習에 묶어버리고 만다고 하였다. 또 cravate 生命은 獨創性(originality) 하나로만 命脈을 維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cravate 는 어떤 規則에도 支配받지 않으며 단지 創造的이고 즉흥적 靈感에 依해서만 形態와 매듭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다. cravate 같이 着用者의 個人的인 創意力에 依해 그 生命力을 表現하는 것을 fashion 의 다른 部分에서는 存在하지 않는다. cravate 만이 着用者에 依하여 매듭지어지고 藝術作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Balzac은 “La Cravate C'est l'homme”(Cravate 가 그 사람이다)라고 간

20. Varron, A., *op. cit.*, p.1382.
21. Varron, A., *op. cit.*, p.1383.

결한 格言을 썼다. “Physiologie de la Toilette”에서 Balzac은 L'art de mettre sa cravate”에서 記述한 것과 상당히 다른 內容을 쓰고 있으나 同一한 意見관 語調가 여러 部分에서 보이고 있다. Balzac이 왜 “L'art de mettre sa cravate”로부터 自己의 무관함을 強調하려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책에서는 너무 여러 곳에서 “Cravatiana”를 표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L'art de mettre sa cravate”는 大成功이었고 몇년사이에 12版까지 販賣되었다²²⁾. 이러한 成功은 책이 쉽고 세련되었으며 流行을 좇는 男性들에게 實用的인 暗示를 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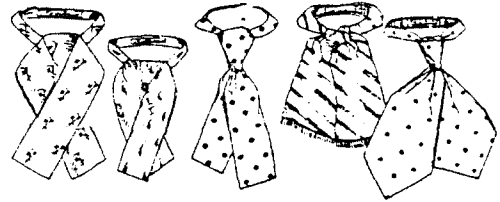
1828년에 “Code de la cravate”(cravate에 對한 規則), Code civile, manuel complet de la politesse” (Horace Raisson 著書)라는 出版物이 發刊되었는데, cravate는 fashionable한 男性의 證明書라고 했으며 1829년의 “Code de la toilette”라는 책에서는 모든 불란서 男性은 最少한 아침에 cravat를 매는데 15분은 使用할 것을 要求하며이 時間이 깊은 冥想으로 소요될터이니 이로서 불란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方向으로의 思想的 進전을 可能하게 할 것이라는 極斷의 表現을 했다. cravate에 關한 처음 出版物이 發刊되었던 영국에서도 이것에 關한 關心이 계속되었다.

1830년 Casaly Officer에 의해 The Whole Art of Dress, 책자가 London에서 出刊되었는데 이 책의 Cravatiana라는 章에서는 그전 出版物에 使用되었던 哲學的 語調와는 다른 實質의 角度에서 neckwear의 모든 重要한 형과 社會的 意義에 對한 說明이 포함되어 있다. 1854년의 책 Historire Philosophique, Anecdotique et Critique de la Cravate (cravate에 關한 철학적 일화적 및 비판적 역사)에서는 cravate에 關한 問題는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淸명하고 collar는 흔히 cravate 없이도 着用되곤 한다고 했다. 점차로 cravate에 對한 關心이 줄어들게 되자, 1865년 E.Kerckhoff는 Le Costume á la cour et á la ville라는 책에서 cravate는 그의 重要性을 잃어버렸다고 쓰고 있다²³⁾.

1830年頃부터 cravate는 necktie로 부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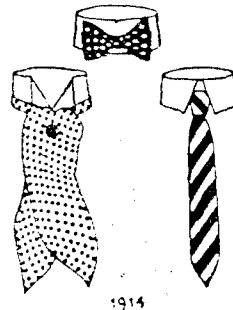
22. Binder, Pearl. Muff and Morals, p. 48.

23. Binder, Pearl. Muff and Morals, p. 48.



[그림 12] Ready-made Cravats of 1890's Reading from the left, the flat scarf, the Ascot puff, Tecks scarf, de Joinville, a Teck scarf inspired by the four-in-Hand.

Later, Katherine Morris & Oerke, Bess Viola, Accessories of Dress, p. 221.



[그림 13] Three of the most important forms of neckties; the butterfly bow and the Four-in-Hand.

The broad tie shown on the left of the illustration is only worn with formal dress, such as the morning coat or frock coat.

Varron, A., Ciba Review 38, p. 1395.

을만큼 男性服裝의 조그마한 accessory로서 變化를 한다. 이때부터 necktie는 흰색 검은색 以外에도 여러가지 색이 있고 이미 만들어진(既成品) necktie도 나왔으며 材料도 多樣한 것이 使用되었다. 1837年頃에는 검은색 satin이나 serge로 된 necktie가 特別히 流行했으며 necktie보다는 Scarf라고 불렀던 dinner用 neck wear가 등장한다. 이 scarf는 shirts前面을 全部 뒤덮었고 tie pin으로 裝飾하였는데 이 tie pin은 50年度에 流行을 한다. 1840年頃에는 긴 tie를 매기 시작하였는데 목을 두번 감은 후에 shirts前面에 넓게 내려뜨린 것이 scarf와 같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개

의 tie를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목에 두르고 다른 것은 앞가슴에 내려뜨렸다. 1844년에는 de Joinville 왕자의 이름을 딴 Joinville 타이가 유행했는데 끝이 사각형으로 되어 lace나 fringe로 장식하였다. 1850년頃에는 tie를 큰 나비모양으로 묶었는데 뾰족하게 안감을 바쳐서 끝이 뾰족하게 나왔으며 가끔은 barrel형 necktie로 매었다. 1860年度 후반에는 높은 necktie는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좁고 납작한 나비 모양의 tie가 등장한다(그림 10) 또 初期 four-in hand라는 現代 necktie와 같은 모양의 tie가 나왔으며 octagon이라는 既成品 tie가 유행을 한다²⁴⁾. 1870년頃에는 coat 단추가 목까지 높아져 밖으로 보이는 shirts 앞면이 좁아져 tie의 重要性이 없어지고 여러가지 collar형이 나온다. 19世紀 末에는 bow tie(string tie) four-in-hand (teck 혹은 derby라고도 부름) ascot, scarf(그림 11) 등이 유행을 하며 차차로 既成品는 유행에서 사라지고 만다(그림 12). 20世紀 初부터 세가지의 가장 重要的 necktie형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것은 나비 necktie 지금의 긴 necktie(four-in-hand), 주로 正裝(禮服)에만 着用하는 넓은 tie 등이다(그림 13).

IV. 結 論

17世紀 初 불란서에서 Croatia 軍人들로부터 始作된 cravate가 現代男性衣裝의 necktie로 定着하기까지 變化와 發展은 多樣하였다. 單純히 魅力과 편안함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려한 lace로 쉽게 한번 목에 둘러서 맨 후에 끝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初期의 cravate가 가장 適合하겠지만 fashion이란 언제나 魅力과 편안함을 退求하여 發展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機能面에서도 necktie를 男性衣裝의 成功事例로 들기는 힘들다. 좀더 크고 아름다워서 어두운 色感의 男性衣裝에 全體의 生動感의 變化를 주지 못하는 것이 現代 男性의 necktie이다. 그러나 男性 또는 固有性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沈鬱感까지 일으키는 衣裝과 구두와 모자를 着用하고서라도 화려

한 色感의 necktie로 아름다움과 獨自性을 가지게 된다. 또 necktie를 選擇着用함으로써 자기 生活信條가 保守의이며 반 開放의인지 또는 자유분방하고 進步의인지를 表現하며 매일 매일 變하는 個人主義의 雰圍氣와 感情까지 엿보게 할 수 있다. 검은색 tie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哀悼하며 혹은 tie를 매지 않음으로써 tie로 正裝한 부류에 對한 경멸까지 나타낸다. cravate가 政治的 表現의 수단으로 利用되었음을 앞서 本論에서 거론했거니와 그 例로는 過激 革命派의 san cravate 革命軍將軍의 검은색 cravate, Mascadine의 초록색 cravate 및 Incroyable의 높은 cravate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의 연장으로 現代와서는 같은 學校出身이 함께 使用하는 모교 tie와 영국에서는 사회당 당원의 붉은색 necktie에까지 이른다.

cravate가 發展變化하여 Beau Brummell에 오면 아름다움과 儀式이 最高調에 도달한다.

cravate를 매는 것은 Brummell 自身에 對한 內部的 精神의 아름다움을 外部로 自然스럽게 表現하였기에 技術과 손재주의 영역을 지나서 藝術이었고 엄숙한 儀式이었다.

다채로운 색과 환상적 影響의 17世紀 時代에 始作된 Baroque가 불란서에서 얼마동안 꽃피운 후에 Charles 2世와 같이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국에서는 産業革命과 傳統의 憲法政治에 基盤을 두고 中産階級이 다른 곳보다 먼저 社會的 地位를 얻고 이에 따른 Charles의 영국식 發展이 dandyism과 더불어 꽃을 피운다. dandy의 王子 Brummell이 이러한 전성기를 代表하며, 그로 인하여 영국 男性 衣裝은 구라파를 거쳐 世界를 지배하게 된다.²⁵⁾ 한편으로 革命을 전후한 불란서에서는 muscadin Incroyable 등이 cravate를 政治的 現상으로 表現하고 있다.

이러한 環境下에서 Brummell에 依한 영국적 신사복이 現代男性衣裝의 元祖로서 固定되고 그와 함께 cravate도 男性衣裝의 一部로서 役割을 하면서 몇차례 變化를 거쳐 現代式 男性 necktie, four-in-hand로 發展하였으며 형태는 같으나 色相의 變化와 necktie의 넓이와 길이가 조금씩 變化를

24. Cunnington, Phillis. Costumes of the Nineteenth Century. Boston; Plays, Inc., 1970. p. 15.

25. Carter, Ernestine. Magic Names of Fash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0. p. 18.

가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참 고 문 헌

1. Biglow, Marybelle S., Fashion in History. Minnesota: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 1970.
2. Binder, Pearl Muffs and Morals. London: George G. Harrays & Co., 1953.
3. Binder, Pearl. The Peacock's Tail. London: George G. Harrays & Co., 1958.
4. Bradfield, Nancy. Historical Costumes of England. London: George G. Harrays & Co. Limited, 1938.
5. Bradley, Carolyn G.. Western World Costume.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Inc., 1954.
6. Carter, Ernestine. Magic Names of Fash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0.
7. Cunnington, C. Willett and Cunnington, Phillis.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Great Britan, 1959.
8. Cunnington, C. Willett and Cunnington, Phillis.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Eighteenth Century, Great Britan, 1959.
9. Cunnington, C. Willett and Cunnington, Phillis.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Nineteenth Century. Great Britan, 1959.
10. Cunnington, Phillis. Costumes of the Nineteenth Century. Boston: Plays, Inc., 1970.
11. Cumming, Valerie.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London: Batsford Academic and Educational Limited, 1981.
12. Hill, Georgiana. A History of English Dress. Richard Bentley and Son, 1893.
13. Langner, Lawrence.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Hastings House, 1959.
14. Laver, James. Clothes. New York: Horizon Press Inc., 1953.
15. Liver, James. Dandies. London: George Weidenfeld and Nicolson Limited, 1968.
16. Lester, Katherine Morris and Oerke, Bess Viola. Accessories of Dress. Illinois: Chas. A. Bennets Co., Inc., 1940.
17. Picken, Mary Brooks.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ls Co., 1957.
18. Ribeiro, Aileen. Dress in Eighteenth-Century(1715~1789) Europe, London: B.T. Batsford Limited, 1984.
19. Schramm, H., "Men's Dress." Ciba Review, Vol. 11, No. 124, 1958.
20. Simmel, George. Fashion International Quarterly. Vol. 10, Oct., 1904.
21. Varron, A. Ciba Review 38 Neckties. Basle, Switzerland, 1941.
22. Wilcox, R. Turner. The Dictionary of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9.
23. Wilcox, R. Turner,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24. Yarwood, Doreen.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8.
25. 양숙희, "19세기 유유럽 신사복 Mode의 특성" 한국의류학회 Vol. 8, No. 3, 1984.
26.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1.